

# 오구라 신페이(小倉進平)의 조선어 연구는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야스다 도시아키(安田敏朗)\*\*

## 〈차 례〉

1. 들어가며
2. 오구라 신페이(小倉進平)의 약력
3. 한국어 연구의 동기
4. 계통론의 서술 방식
5. 방언 연구가 지니는 의미
6. 결론

## 【국문초록】

오구라 신페이(小倉進平)는 현대 조선어 연구에 본격적으로 착수한 인물의 한 사람이다. 본고에서는 오구라의 연구의 근저에 있는 지향을 탐색하고자 한다. 그것은 오구라를 도쿄제국대학에서 지도했던 우에다 가즈토시(上田万年)가 구상한 『제국대학 언어학』의 지향과 일치하는 것이었다. 즉, 일본어와 그 주변 여러 언어와의 관계를 비교언어학적으로 고찰하기 위한 자료를 찾기 위한 연구였다. 따라서 조선어의 고형(古形)을 재구성하기 위해 오구라는 문헌 자료와 방언 조사를 적극적으로 실시했다. 그 결과, 일본어와 조선어의 동계론에 대한 신중한 입장을 얻게 되고, 또한 방언 조사를 통해 종합적인 방언구획론을 구축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러한 자세는 식민지배하의 조선어의 현실을 직시하는 것은 아니었던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주제어] 오구라 신페이(小倉進平), 제국대학언어학, 비교언어학, 동계론, 방언조사

\* 이 논문은 야스다 도시아키(安田敏朗) 『“언어”의 구축-오구라 신페이와 식민지 조선을 둘러싸고』 (三元社, 1999년)의 내용의 일부를 재구성한 것이다.

\*\* 일본 히토쓰바시대학(一橋大学) 언어사회연구과 교수

## 1. 들어가며

말에 대한 연구가 정치성을 가지게 되는 경우는 그다지 없을 것이라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부지불식간에 정치성을 갖게 되는 일도 많다.

근대 일본의 조선어 연구도 예외는 아니다. 누군가는 “현대 조선어로 완성시킨 데에는 실로 가나자와(쇼자부로, 金沢庄三郎)와 오구라(신페이, 小倉進平) 두 박사를 중심으로 하는 일본 학자들의 큰 공헌이 있었다”라고 1966년<sup>1)</sup> 언급한 바 있다(괄호 안은 필자가 보완한 것이다. 이하 동일). 이러한 인용만을 놓고 보면, 이는 단지 하나의 해석에 불과할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말한 인물이 하기와라 히코조(萩原彦三, 1890~1967)가 되면 갑자기 문제는 달라진다. 요컨대, 하기와라는 1816년에 도쿄제국대학 법과대학을 졸업한 조선총독부 관료(1923년에는 학무과장 및 종교과장이 되어 그 후 함경남도 지사 등을 거쳐 일본의 탁무성, 1937년에는 탁무차관을 역임함)인데, 그 하기와라가 우방협회라는, 패전 후 구 조선총독부 관계자가 설립한 자료 수집·보존을 위한 모임의 회고담 속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무엇인가. 언어학자도 아닌 하기와라가 “현대의 조선어로 완성시킨다”라고 했을 때의 “현대의 조선어”란 무엇을 의미하며, 그것을 “완성시킨 것”에 일본학자들의 “큰 공헌”이 있었다고 말한 것은 가나자와나 오구라의 조선어 연구를 정치적으로 이용한 것일 뿐만 아니라 식민지 근대화론까지 상기시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가나자와나 오구라는 자신의 연구가 정치적으로 사용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고 외려 민폐일 뿐이라 생각하였을 것이나, 본고에서는 이들, 특히 오구라의 조선어 연구가 가지는 의미를 고찰함으로써, 직접적으로 “현대의 조선어를 완성시킨다”는 것을 의도한 것이 아님을 지적하고자 한다. 이러한 지적을 통해 새삼스레 하기와라의 논점이 자의적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1) 萩原彦三, 『日本統治下の朝鮮における朝鮮語教育』, 友邦シリーズ 第3号, 財団法人友邦協会, 1966年, 1쪽. 구 총독부 관료로부터 들은 이야기는 이 우방 시리즈에서 공개되었지만 미공개된 것은 근년에 가쿠슈인 대학(学習院大学) 동양문화연구소 기요인 『東洋文化研究』에 계속 번각·해설이 이루어지고 있다.

자 하는 것은 아니다. 오구라의 조선어 연구의 의도 역시 당시의 언어학을 둘러싼 시대적 상황에 규정되어 있었다는 것을 보이고자 한다. 이런 의미에서 오구라의 연구도 정치성과 무관하지 않다.

간단히 논의의 방향을 제시하면, 오구라는 동경제국대학의 언어학과에서 수학했으며 일본의 근대 국어학·언어학을 창시했다고 여겨지는 우에다가 즈토시(上田万年, 1867~1937)가 설정한 “제국대학 언어학”의 틀 안에서 조선어의 연구를 시작하였다. “제국대학 언어학”이란 일본어와 주변 여러 언어와의 계통 관계를 탐색하는 것이며 “일본어의 위치”를 정하는 것을 목표로 한 것이었다. 이는 비교언어학을 과학으로 존봉하고 있던 우에다가 일본어를 대상으로 행하려고 한 과학적 연구 프로젝트이며, 전근대의 “국학”적 일본어 연구에 대한 근대적 “언어학”의 도전이기도 했다. 구체적인 것은 우에다의 1896년도와 그 이듬해 “박언학”(언어학)의 강의 노트에 남아 있다. 이는 언어학자 신무라 이즈루(新村出, 1876~1967)가 필기한 것인데, 1896년도의 이 “박언학” 강의에서 우에다는 언어의 비교를 강조하며, 이를 일본의 맥락에 두고선 다음과 같이 “제국대학 언어학”을 제창한다.

일본제국대학 언어학에 대하여

Indogerm., Semitic., Ural-alt., Indo-Chinese 등의 대 family 가운데 일본어는 어느 쪽에 속해야 하는가에 따라서

일본어는 북쪽으로는 Corea를 거쳐 만주어

Chinese를 거쳐 서장, 인도

Ainu어

남쪽으로는 Malay, Polynesia 등의 언어를 연구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 대학 언어학의 강좌는, 이들 Oriental Philology를 연구하여, 일본어의 위치를 정하는 side에 있다. Indo-European 등은, 유럽학자의 authority에 따라 연구한 결과를 알고 만족해 할 뿐이다. 그러나 그 쪽에서 사용하는 means 등은 충분히 취해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sup>2)</sup>

즉, 우에다는 Oriental로 한정하여 “일본어의 위치를 정하는” 일, 일본어와 주변 여러 언어와의 관계를 정해가는 것이 제국대학의 언어학(博言学) 강좌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다.<sup>3)</sup>

오구라는 이 강의를 듣지는 않았지만 우에다의 이런 주장은 반복되었고, 그의 제자들 역시 이에 따라 연구하기 시작했다. 오구라와 같은 해에 언어학과에 들어간 하시모토 신기치(橋本進吉, 1882~1945)가 고대 일본어 연구, 즉 일본어 옛말의 재구를 목표로 하였고, 이하 후유(伊波普猷, 1876~1947)가 유구어 연구를, 그리고 오구라가 조선어 연구를 시작한 것이다. 여기에 한 학년 아래인 긴다이치 교스케(金田一京助, 1882~1972)가 “남은 것”이라는 형식으로 아이누어 연구를 담당하게 되었다.<sup>4)</sup>

그러나 오구라는 우에다의 프로젝트에 따라서 연구를 진행하였지만 점차 계통론과는 거리를 두기 시작해 가나자와 쇼자부로의 일본어와 조선어의 동계설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게 된다.

반면 오구라는 문헌 연구 외에도 조선어 방언 연구를 수행하여 조선어의 옛 모습을 추적하여 갔다. 이는 “현대의 조선어”가 취해야 할 이상적인 상태를 정면으로 밝히지 않는 자세로 이어졌다. 이러한 자세가 정치적이라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당연하게도 이러한 점으로 인해 식민지 지배하 조선인에 의한 한국어 연구·언어 운동과는 거리가 있게 되었다.

## 2. 오구라 신페이(小倉進平)의 약력

오구라 신페이의 약력을 연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 
- 2) 新村出筆録・柴田武校訂, 『上田万年 言語学』, 教育出版, 1975年, 38쪽.  
 3) 자세한 것은 安田敏朗, 『帝国大学言語学』の射程――上田万年から金田一京助へ, 『立命館言語文化研究』16卷 3号(2005年 2月); 야스다 도시아키, 『근대 이행기의 일본어학 성립』,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엮음, 『근대이행기 동아시아의 자국어인식과 자국어학의 성립』, 소명출판, 2015을 참조.  
 4) “남은 것”으로서의 아이누어 연구에 대해서는 丸山隆司, 『〈アイヌ〉学の誕生――金田一と知里と』, 彩流社, 2002年 참조.

| 연도                    | 약력   |
|-----------------------|--|
| 1882년                 | 센다이(仙台) 출생   |
| 1903년                 | 제2고등학교(센다이) 졸업, 동경제국대학 문과대학 문학과(언어학) 입학<br>가나자와 쇼자부로(1872~1967)로부터 조선어를 배움.<br>(1904년부터 가나자와는 “아이누어 조선어 강사”로 근무)   |
| 1906년                 | 졸업[졸업논문 “헤이안조 말에 이르는 국어(일본어)의 음운 변천”], 국어 연구실 조수   |
| 1907년~<br>1910년       | 동경제국대학 대학원에서 국어음운사 연구, 메이지대학 강사.   |
| 1911년 5월              | 조선총독부 학무국 편집과속·편수서기(관임관) 겸임<br>교과서 편수·검정 실시  |
| 1917년 5월<br>~1919년 6월 | 경성고등보통학교 교사와 경성의학전문학교 교수 겸임  |
| 1919년 6월              | 조선총독부 편수관(주임관)<br>관료로서의 영달보다는 조선어 연구에 몰두. 휴가·출장 등으로 한국어 방언 조사, 문헌 수집을 하게 됨.  |
| 1912년~<br>1924년       | 논문 44편을 발표했다.<br>저서는 『朝鮮語学史』(大阪屋号書店, 1920年. 増訂版, 刀江書院, 1940年)<br>『国語及朝鮮語のため』(ウツボヤ書籍店, 1920年)<br>『国語及朝鮮語發音概説』(近沢印刷所出版部, 1923年)<br>『南部朝鮮の方言』(朝鮮史学会, 1924年)<br>『郷歌及吏諺の研究』(京城帝国大学法文学部紀要1, 1929年. 다만 1924년 탈고, 1935년 학사원 은사상 수상)<br>주요 업적은 총독부 관리 시대에 쓰여졌다. |
| 1924년~<br>1926년       | 영·불·미에 “언어학연구”를 위해 유학<br>이 유학은 1924년 경성제국대학 설립(1926년 개교)에 따른 것이었다(1924년 예과 개교).  |
| 1926년                 | 경성제국대학 법문학부 문학과 조선어학조선문학 제2강좌 담당교수   |
| 1933년                 | 동경제국대학 문학부 언어학과 주임교수.<br>경성제국대학 병임교수(집중강의)<br>한국어 방언 조사에 집중하여 방언 구획을 완성.<br>이 시기 주요 저서<br>『平安南北道の方言』(京城帝国大学法文学部研究調査冊子 第1輯, 1929年)<br>『咸鏡南道及び黄海道の方言』(同 第2輯, 1930年)<br>『朝鮮語方言の研究』(資料篇·研究篇, 岩波書店, 1944年)  |
| 1943년                 | 은퇴   |
| 1944년                 | 사망 <sup>5)</sup>   |

5) 오구라의 약력에 대해서는 河野六郎, 『故小倉進平博士』, 『言語研究』 16号(1950年 8月), 『小倉進平』(江上波夫編『東洋学の系譜』第2集, 大修館書店, 1994年)가 있으며 저작 목록으로는 河野六郎, 『故小倉進平博士著作目録』, 『言語研究』 16号(1950年 8月)가 있다. 또 京都大学文学部国語学国文学研究室編, 『小倉進平博士著作集』, 全4卷(京都大学国文学会, 1975年)도 있다. 또 学習院大学東洋文化研究所には『小倉進平関係文書』가 있고, 그 목록 『小倉進平関係文書目録 - 学習院大学東洋文化研究所所蔵(調査研究報告 no. 60)』(2016年)도 있다.

### 3. 한국어 연구의 동기

오구라가 언어학과를 지망한 이유는, 후년의 회상하기로는 “동향 선배이자 박언학과 출신인 이카리 고우노스케(猪狩幸之助, ?~1915년)의 학식과 인품됨에 사숙한 점이 많았다”는 데에 연유한 듯<sup>6)</sup> 하나, 그 이상은 명확히 알 수 없다. 이카리 고우노스케는 1897년에 박언학과(후의 언어학과)를 졸업하고 이듬해 설립된 언어학회(『언어학잡지』 1900년 2월~1902년 8월 간행)의 창설 멤버였다. 『東北地方発音仮名遣矯正法』(藤崎書店, 1901)이라는 책자를 간행하였다.

언어학과에 진학한 이유는 그다지 명확하지 않지만 한국어를 선택한 이유는 명확하다. 그는 1936년의 회상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우리는 학창 시절에 (가나자와 쇼자부로) 박사의 조선어에 대한 심도 있고 흥미 있는 강의를 듣고 동양어학 연구의 필요성을 통감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나에게 전적으로 조선어를 연구할 결심을 하게 하시고 조선행을 추천해 주신 것도 박사였다. (.....) 나의 조선어 연구의 동기는 조선어란 본래 어떤 언어인가, 즉 조선어는 어떤 구조를 가지며 주위의 언어와 어떤 관계에 있는가를 밝히고 싶다는 염원에서 출발한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첫 번째, 오늘날에 이르기까지의 조선어 연구의 역사를 이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믿으며, 두 번째, 조선어 자체의 역사를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세 번째, 조선어가 다른 언어에 대해 차지하는 위치 관계를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느꼈다.<sup>7)</sup> (밑줄은 인용자)

가나자와 쇼자부로에게서 조선어를 배워 조선어와 그 주변 언어와의 “위치 관계”를 밝히고 싶었다는 것이다. 이것은 앞서 보인 우에다 가즈토시의 “일본어의 위치”를 정하기 위한 “제국대학 언어학”과 매우 유사한 연구 목적이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 그리고 오구라는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은 “처음

6) 小倉進平, 『日本言語学会の創立』, 『帝国大学新聞』 1938년 6월 6일付, 7쪽.

7) 小倉進平, 『郷歌・吏読の問題を繞りて』, 『史学雑誌』 47卷 5号, 1936년 5월, 79~80쪽.

부터 이 부분(세 번째)에 있다”고 단언하고 있다. 앞서서도 언급했지만 비교 언어학의 방법으로 언어의 계통 관계를 더듬어 가는 것이 우에다 가즈토시가 도입한 “과학적”인 언어 연구였으므로 이 시대의 유행에 오구라도 영향을 받고 있던 것을 알 수 있다.

이어 조선 총독부 학부국 관료일 때의 인상도 적고 있다.

가나자와 선생으로부터 배운 학문적 이론 등과는 별도로, 내가 경성에서 조선어 연습을 시작한 것은 서른 살 때의 일이다. 총독부의 한 관리로서 사무를 보는 데에는 조선어 공부에 전혀 필요하지 않았다. 단지 학문적으로 이를 연구해 보려는 일념만이 나를 학습하게끔 한 것이다. 그러나 그것 역시 실제 사회에 맞는 생생한 조선어가 아니라 소위 탁상 위에 있는 조선어에 지나지 않았다.<sup>8)</sup>

오구라가 조선 총독부 관리가 된 것은 1911년, 세는나이로 30세 때이며 이때 처음 “실지의 조선어”를 접했다는 것이다. 한편 총독부 일을 하는 데 있어 조선어 학습이 필요하지 않았다고 말한 점에도 주목해 두고자 한다.

#### 4. 계통론의 서술 방식

그렇다면 오구라는 일본어의, 그리고 조선어의 계통론에 대해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있었던 것일까. 단적으로 말하면 이후의 연구를 기다리지는 신중한 자세이며, 두 언어의 역사적 변천을 밝히고 나서 생각해야 한다고 보았다. 예를 들어,

우리는 모름지기 먼저 일본어와 조선어의 역사적 변천의 흔적을 보다 분명히 밝히고, 다른 한편으로 두 언어의 주변에 존재하는 상사점과 상이점을 공정하고

---

8) 전계 논문, 90쪽.

엄밀하게 구별·비판하여, (.....) 완전히 동일 계통임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더욱 더 많은 노력과 많은 세월을 투자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믿는다.<sup>9)</sup>

라고 말했다. 또 역사적 변천을 좇으려면 방언의 연구도 불가결하다고 말하고 있다. 즉 계통론의 일반적인 경향은 “경성”의 현재 표준 어법에 기초하여 이루어졌다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역사적 변천과 방언 탐구가 과제가 될 것이라 보았다.<sup>10)</sup>

일본에서는 1900년을 전후로 일본어 계통론이 화제가 되었었다. 그렇다고는 해도 그것은 일본 민족의 기원을 찾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 되기 일쑤였다. 언어가 계통 관계에 있다고 해서 반드시 같은 민족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저널리스틱한 일본인 기원론에 있어 그러한 냉정한 논의는 아무래도 좋은 일이었다. 예를 들어 경제학자이자 역사가인 다구치 우키치(田口卯吉, 1855~1905)는 일본어 = 아리아 어족설을 주장하면서 일본인이야말로 아리아 인종이라고 1901년에 주장한 바 있다. 당시 젊은 언어학자들이 반론을 폈었지만, 언어학적으로 검증 가능한 절차를 요구하는 언어학자들의 반론은 공전을 거듭할 뿐이었다.<sup>11)</sup> 언어의 일치는 민족의 일치가 아니라는 주장은 1895년에 우에다 가즈토시나 다구치 우키치에 앞서 행해진 것이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었던 듯하다.<sup>12)</sup>

어찌되었든 간에 이런 경위를 잘 알고 있었을 오구라는 언어의 일치가 민족의 일치가 아니라는 것 역시 이해하고 있었다. 예를 들어 은사인 긴다이치 쇼야부로의 저서 『日鮮同祖論』(刀江書院, 1929)에 대한 서평에서 이러한 생각을 엿볼 수 있다.

9) 小倉進平, 『朝鮮語と日本語』(国語文化講座24), 明治書院, 1934年, 61쪽.

10) OGURA, Shinpei, A STUDY OF THE HUMBLE AND HONORIFIC FORMS IN THE KOREAN LANGUAGE, p.6(『朝鮮語に於ける謙讓法・尊敬法の助動詞』, 東洋文庫論叢26, 1938年 英文序)

11) 여기에 대해서는 長田俊樹(아사다 도시키), 『はたして言語学者はふがいないのかー日本語系統論の一断面』, 井上章一編『学問をしぼるもの』, 思文閣出版, 2017年 참조.

12) 이 때 이루어진 우에다의 강연에 대해서는 上田万年演説, 『日本語学の本源(一八九五年六月一五日)』(安田敏朗翻刻・校注), 『言語社会』10卷, 2016年 3月 참조. <https://doi.org/10.15057/28117>.



그러나 이 책에 대한 나의 바람을 굳이 말씀드리자면, 이 책이 일본과 조선 양 민족의 이동에 대해 논하고 있는 이상 이제 민족학, 고고학 방면의 자료를 조금 더 추가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다. 언어학은 인종론·민족론에 대해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되기는 하나, 최후의 결정 요소가 되지는 않는다는 것은 새삼스레 말할 필요도 없다. 민족학·고고학 상의 내선 동조론이 성립한 후에야 박사의 동조론은 더욱 그 확실성을 띠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sup>13)</sup>

은사의 저작에 대한 비판이므로 약간 예들려 말한 면이 없지 않지만, 하고 싶은 말은 명확한 것이다.

이러한 신중한 태도는 일관된다. 예를 들어 한국어의 계통에 대해서는,

조선어는 계통상 우랄·알타이어족, 특히 알타이어족과 가장 깊은 관계에 있는 것이라 추단하지만, 이에 조금의 위험도 무릅쓰고 있지 않는다는 것을 믿는 바이다.<sup>14)</sup>

라고 알타이어계에 속함을 거의 단언하고 있는 한편 일본어와 조선어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매우 조심스러워하면서도, 다음과 같은 상상을 하는 것이 고작이었다.

오늘날 조선어와 일본어 사이에는 음운·어휘에 있어 그다지 현저한 유사성을 발견할 수 없지만, 어법(특히 통사론)에 관해서는 대체로 동일한 현상이 존재하는 것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어법의 유사성은 언어 계통의 같고 다름을 결정하는 준거가 되는 것이므로 일본어와 조선어는 아주 오래 전에는 하나의 공통어(Gemeinsprache)를 이루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 조선어가 대륙의 구석에 위치하여 그 본래의 특징을 충실하게 보존하여 순조롭게 발달시킨 것에 비해, 일본어는 섬나라로서의 특수 지위, 그리고 남방어·북방어로부터의 영향 등이 더해져 적어도 오

13) 小倉進平, 『金沢博士著『日鮮同祖論』, 『京城日報』, 1929年 5月 19日, 6쪽.

14) 小倉進平, 『朝鮮語の系統』, 岩波講座東洋思潮, 1935年, 52쪽.

늘날 일본어의 기초가 완성된 소위 원(原)일본어의 시대에 이르러서는 이미 현저한 변천을 완성한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sup>15)</sup>

어디까지나 상상에 지나지 않는, 자료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관계라는 논의에 그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 5. 방언 연구가 지니는 의미

### 1) 경계의 확정 - 제주도 조사와 대마도 조사

1944년에 여태까지의 오구라의 방언 연구의 집대성이라는 형식으로 간행된 『朝鮮語方言の研究』에서 오구라는 1911년 조선으로 건너간 직후 “즉시 실제 회화를 배우고 각종 문헌을 섭렵해서 조선어 연구에 종사했는데 이것이 완전한 연구가 되기 위해서는 방언 연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sup>16)</sup>고 회상하고 있다. 오구라의 한국어 방언 조사 지점은 259곳에<sup>17)</sup> 이르나, 먼저 오구라의 초기 방언 연구 의도를 확인해 보고자 한다.

오구라가 맨 처음 방언 조사를 시행한 것은 1912년 11월부터 12월까지로 장소는 제주도였다. 그 다음 방언 조사는 1914년 여름 휴가를 이용하여 대마도에서 실시하였다. 조선어와 일본어의 방언 조사인 셈인데 오구라는 그 의도를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먼저 제주도 방언 조사에 대해서는,

내가 이번에 제주도에 가서 그 방언을 알아보고 싶었던 것은 그 방언이 조선 본토의 언어에 대해 더욱 나아가 일본어에 대해 어떤 관계가 있을지, 또 어떤 서광을 비춰 줄지 생각해 보려고 한 것에 기인한다.<sup>18)</sup>

15) 小倉進平, 『朝鮮語概観』, 『国文学 解釈と鑑賞』, 4卷 7号, 1939年 7月, 137쪽.

16) 小倉進平, 『朝鮮語方言の研究 下巻』, 岩波書店, 1944年, 8쪽.

17) 전계 논문 15~20쪽에 조사지 일람이 게재되어 있다.

18) 小倉進平, 『济州島方言(-)』, 『朝鮮及滿洲』 68号, 1913年 3月, 21쪽.

라고 하였다. 명확히 제주도 방언의 조선어 및 일본어에 대한 위치 설정을 하고자 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대마도의 방언 조사에 대해서는,

그 방언이 어느 정도까지 조선어와 관계있는지, 또는 관계없다고 해도 해당 섬의 방언이 내지의 어느 지방의 말과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를 조사하려고 한 것이다.<sup>19)</sup>

라고 말하고 있다. 여기에서도 조선어와의 관계를 염두에 두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실지의 방언 조사 시 제주도와 대마도 방언을 조사 대상으로 한 것은 각각 일본어·조선어와의 관계를 탐색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지만 그것은 다시 말해, 일본어와 조선어의 경계를 정하려는 의도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 점에 대해 오구라가 18년 후인 1930년 6월 경성제국대학의 공무 출장 형식으로 다시 실시한 제주도 방언조사의 의도와 비교해 보면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1912년 조사는,

요컨대 제주도 방언은 음운의 측면, 어휘의 측면, 어법의 측면에 있어 반도 내륙의 방언과 성격을 달리하는 점이 아주 많다. 우리는 이 섬의 방언이 오랫동안 반도에서 고립되어 있던 관계로 인해 일본어 또는 유구어와 한반도 언어와의 중간에 위치하여 하나의 연쇄를 형성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의심을 감출 수 없는 것이다. 이것들은 각지 방언의 연구와 함께 점차 밝혀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sup>20)</sup>

라고 하는 것처럼 일본어와 유구어, 조선어와의 “연쇄”를 이루는 존재 여부라는 관점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대마도의 방언을 조사하게 되었지만 1930년의 조사에서는,

19) 小倉進平, 「対馬方言(上)」, 『国学院雑誌』 20卷 11号, 1914年 11月, 36쪽.

20) 小倉進平, 「济州島方言(二)」, 『朝鮮及滿洲』 69号, 1913年 4月, 62쪽.

나는 내가 이전에 시도한 이 섬의 방언에 대한 조사가 그야말로 불완전하며, 한반도 내륙의 여러 방언에 대하여 어떠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지 밝혀내기에 부족한 것임을 느끼게 되었다. 이것이 내가 이번에 다시 이 섬에 가서 이전 조사의 미흡한 부분을 연구하게 된 유일한 동기였다.<sup>21)</sup>

라고, 지난 조사의 “미흡한 부분”을 보충하기 위한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었다. 이렇게 두 번의 방언 조사에 의한 결론은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이상 서술한 바에 따라 제주도 방언의 어학적 위치를 관찰하건대, 본래 일부 사람들이 말해 온 것처럼 일본어 등과는 관계가 있다고 생각되지는 않지만, 육지 방언, 특히 전라, 경상 방언에 비해서도 성격이 다른 점이 많아서 그대로 어떤 방언의 세력 범위 내에 두는 것은 매우 곤란한 상태라고 본다. 나는 제주도 방언을 육지의 소위 5대 방언에 대립할 수 있는 별개의 한 방언으로 간주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다.<sup>22)</sup>

즉 조선어와 일본어의 명확한 선긋기를 하는 한편 한반도의 다른 조선어 방언과도 다른 것으로 자리매김한 것이다.

## 2) 방언을 바라보는 관점 - 역사적 재구성과 『郷歌及び吏読の研究』

오구리는 일본어와의 계통 관계에 대해 적극적으로 발언하지 않았음에도, 조선어 연구의 목적을 그 과거 형태를 재구성하는 데 두고 있음에는 변함이 없었다. 옛 형태를 재구하는 것은 비교 연구의 전제이다.

이를 위해서 오구리는 방언과 지명 속에서 고행을 찾았다. 이는 초기의 논문부터 명확하게 드러나 있다. 예를 들어 “제주어는 오히려 조선어의 고행을 간직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사료된다”<sup>23)</sup>라고 적는다거나, “지명에는 오늘날

21) 小倉進平, 『濟州島方言』, 『靑丘學叢』 5号, 1931年 8月, 26쪽.

22) 전계 논문, 70쪽.

쓰이지 않는 옛말이 예전 모습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가 종종 있다”<sup>24)</sup>라고 하는 대목에서 분명히 드러난다.

그리고 오구라는 방언조사 결과를 향가의 연구에도 응용해 갔다. 그것은 『郷歌及び吏誥の研究』 서문(1924년 9월)에 명확히 드러나 있다.

방언에는 간혹 고어가 존재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논할 것도 없다. 필자는 과거 10여 년에 걸쳐 스스로 방침을 세워 방언 조사에 종사해 왔다. 그리고 이러한 조사가 향가 연구에 한 줄기 광명을 비춘 일이 결코 적지 않은 바이다.<sup>25)</sup>

나아가 “신라어”를 방언 속에서 찾으려 하는데 오구라는 “신라어”의 가치를 다음과 같이 말한다.

(.....) 신라가 반도를 통일하여 그 세력이 국내에 퍼졌고, 그 뒤에 성립된 고려와 이찌 조선도 대체로 신라의 영토를 계승하였으므로, 고려 및 이조 시대의 조선어 또한 대부분 신라어의 직접적인 계통을 이어받았다고 해야 할 것이다. 조선어에 있어서 신라어의 가치는 바로 인구어에 있어서 산스크리트어와 비견될 만한 것이다.

신라어! 얼마나 우아하고 아름다운 이름인가. 옛 사람들은 자신의 언어 전통을 밝히고 자신의 조상 문화를 알기 위해 여러 이들이 신라 언어 연구에 몰두하였다. (.....) 여기에서는 단지 오늘날 방언으로서 존재하는 것 중 신라 시대 언어 내지는 그 언어로부터 고어의 계통을 잇고 있다고 인정해야 할 몇몇 어휘에 대해 설명을 덧붙이고자 한다.<sup>26)</sup>

인도·유럽어족에서 산스크리트어가 차지하는 위치를 신라어가 조선어의 역사에서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감정을 그다지 문장으로 표현하지 않는 오구라 치고는 드물게 “신라어! 얼마나 우아하고 아름다운 이름인가”는 표현

23) 小倉進平, 『濟州島方言(二)』, 『朝鮮及滿洲』 69号, 1913年 4月, 58쪽.

24) 小倉進平, 『濟州島方言(三)』, 『朝鮮及滿洲』 70号, 1913年 5月, 49~50쪽.

25) 小倉進平, 『郷歌及び吏誥の研究』, 京城帝国大学法文学部紀要第一, 1929年, 序, 10쪽.

26) 小倉進平, 『南部朝鮮の方言』, 朝鮮史学会, 1924年, 149~150쪽.

은 감정으로 점철되어 있다. 단순한 방언이 아니라 거기에는 “우아하고 아름다운 이름”을 가진 “신라어”의 계통을 끄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찾아가는 것이 방언 연구라는 주장이 엿보인다. “신라어”이기 때문에 과거 신라 땅이었던 경상 방언에서 신라어를 찾으려고 하는 것인데, 이러한 자세는 조선어의 역사적 연속성을 방언 속에서 찾아가는 것이었다.

예를 들어 오구라가 향가나 이두에서 “在”라는 한자를 쓰고 있는 어휘를 방언으로 더듬은 『方言分布上の断面』(1935년 1월)이라는 논문을 보자. 오구라는 먼저 경상 방언이 아니라 전라남북도 방언에 “在”의 고훨(古訓) kion(견, 존경을 나타낸다)이 있음을 지적한다.<sup>27)</sup> 그리고 이를 옛 신라의 지역인 경상도 방언에서 찾았는데 1934년 10월 ‘kio’라는 말을 “조우”했다. 그 때의 일을 흥분이 채 가시지 않은 상태로 이하와 같이 적고 있다.

그리고 나서 나는 평소와 다른 이상한 긴장감을 느끼며 영주(榮州)에 들어갔는데 이 땅에서 내가 예전부터 끝없이 기대하고 갈망해 온 ‘kio’의 모습과 조우하게 되었다. 그 순간의 기쁨은 무엇을 돌아갈 수 있을까. 들리는 바에 따르면 이 지방에는 곳곳에 금광이 매몰되어 있어서 이를 목적으로 출입하는 소위 산사(山師)가 많다고 한다. 내 산사가 우연히도 적중하여 운 좋게 ‘kio’를 파낸 순간의 희열은 광산사가 금광맥을 발견하고 덩실거릴 때의 기쁨과 한 점도 다를 바가 없다며 남몰래 쓴웃음을 지었다. 전라남북도에 존재하는 ‘kio’의 광맥이 홀연히 이 경북 동북부의 단층이 되어 출현한 것이다. 그리고 이 지방의 방언에 있어서의 ‘kio’의 응용은 전라남북도에서의 ‘kio’와 마찬가지로 각종의 형식에 걸쳐 상당히 넓게 사용되어 왔는데 근래에는 그 쓰임이 쇠퇴하여 주로 가정 내의 중년 이상의 부녀자 사이에 쓰이게 되었다고 한다. 언어 변천의 운명은 산간벽지마저도 비껴갈 수 없다. 적어도 완전히 없어지기 전에 이것을 발견하고 기록에 남겨 두는 것을 나의 큰 만족으로 여기는 바이다.<sup>28)</sup>

27) 小倉進平, 『方言分布上の断面』, 『ドルメン』 4卷 1号, 1935年 1月.

28) 전계 논문, 3쪽.

‘금광’처럼 오래된 층으로서 “신라 이래 천 년의 전통을 유지한 오래된 어법의 하나”<sup>29)</sup>가 방언으로서 존재하고 있는 것을 “산사”와 같은 느낌으로 “발견”한 기쁨과 그리고 그것이 “없어지기” 전에 기록한 안도감이 여기서 충분히 전해져 온다. 이곳에서도 드물게 감정이 풍부하게 표현되고 있다. 어쨌든 주목할 것은 오구라의 방언 연구가 이러한 목적 아래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또 흥미의 중심은 방언 그 자체이지 결코 방언 화자가 아니라는 점도 감지된다. 이것은 언어학에서는 공유되는 전제일지도 모르지만 어디까지나 데이터의 공급원으로밖에 보지 않을 수 없는 경향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이하에 나타나는 오구라의 방언 조사 방법을 보면 그러한 생각이 더더욱 강해진다.

### 3) 방언 조사의 방법을 둘러싸고

1931년 6월, 오구라는 경성제국대학 방언회라는 모임에서 『나의 조선 방언 조사 경과』라는 보고를 했다. 그 보고 내용을 조운제가 정리한 것이 『靑丘学叢』에 게재되었다. 여기에서 오구라는 다음과 같이 방언 조사의 방법을 말하고 있다.

(.....) 대체로 현지 조사를 하는 방법으로는 (1) 노인 부인이 적당하지만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보통학교에 가서 실시할 것, (2) 출장을 가기 전 미리 조사를 의뢰할 것, (3) 지명의 속칭, 고명 등을 조사할 것, (4) 근무지로 돌아온 후에 다시 조회를 할 것 등을 꼽았다. 그리고 조사 내용은 (1) 음운-모음과 자음의 발음상 특성을 밝히고, (2) 어휘-미리 조사해야 할 어휘 일람표를 작성하여 거기에 기입하고(표준이 되어야 하는 것은 보통 300 단어 내지 600 단어), (3) 어법-문·답, 명령 또는 과거·현재·미래 등 각종 형식을 표로 나타내고 거기에 기입하는(평안남도·함남북도 조사시 이들 형식이 200여종에 이르렀다) 등 세 측면이고, 이들

29) 전계 논문, 4면.

조사 소요 시간은 연속적으로 3시간 내지 5시간을 필요로 한다. 시일의 절약상 여행을 강행해야 했기 때문에 지금 보면 꽤나 모험인 부분도 있었다.<sup>30)</sup>

특히 밑줄 친 부분에 주목하면 “노인과 부인”은 제외하고 보통학교 학생들을 모아 사전에 준비한 질문표를 채워 가는 식으로 조사를 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은 『朝鮮語方言の研究』에도 기술되어 있다.

다음으로 제보자의 종류인데, 원칙적으로 보통학교(조선인 교육의 소학교) 상급 남녀 학생 약 10명을 뽑았다. 조사의 목적을 고려하면 노인, 특히 부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가장 좋으나 이러한 사람들은 장시간의 조사를 견디지 못하고, 또한 질문에 대한 답변에 요령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학교 학생을 이용한 것이다.

다음으로 조사 항목을 기입하는 조사지인데, 이것은 나 자신의 경험에 의해 작성한 것이다. (...) 앞서 음운·어휘·어법에서 보고 특색 있다고 생각되는 단어를 스스로 선택하고 여행을 거듭할 때마다 스스로의 경험에 근거하여 그 범위를 점차 확장해 갔다. 처음에는 그 수가 극히 적었으나 점차 그 수를 늘려 오늘날에는 육백 내지 칠백 개의 항목에 이르고 있다.<sup>31)</sup>

이러한 철저한 효율화 후에 이루어진 것이 259개 지역에 이르는 방언 조사였다. “사전에 조사를 의뢰할 것”이라는 항목이 앞의 인용문에 있었다. 오구라는 처음에는 조선총독부 학무국 관료였다. 그 관료가 각지의 보통학교에 학생을 모아 놓으라고 연락한다. 보통학교 선생들은 필사적으로 학생을 모았을 것이다. 그리고 “상급 학생 남녀 약 10명”은 아마 국어로서의 일본어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아이들이 선택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보통학교에 모인 아이들에게 오구라의 조사표를 채워 가기 위한 질문이 이루어졌다. 오구라가 그리는 그림의 조각을 얻기 위한 데이터를 위한 방언 조사라고 해도 좋을

30) 『京城帝大方言會』, 『靑丘學叢』 6号, 1931年 11月, 188쪽.

31) 小倉進平, 『朝鮮語方言の研究 下卷』 岩波書店, 1944年, 12쪽.



것이다. 학문이 갖는 폭력을 여기서 느껴도 좋지만 거기에 덧붙여 식민지 지배가 갖는 폭력도 함께 느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오구라 자신은 그러한 것에 반드시 민감했다고 말할 수는 없다. 예를 들어 1912년 겨울 방언조사로 제주도에 갔을 때를 1935년, 다음과 같이 회상하고 있다. 그 때는 “한일 합방 후 얼마 되지 않은 시기여서 민심의 동요도 잦았고, 치안도 충분히 유지되고 있다고는 말할 수 없었다”고 하며, 보통 학교도 세 군데밖에 설치되어 있지 않아 말 한 마리와 마부 한 명을 고용해 섬을 일주하는 조사를 시작하였는데 “경찰서에서는 나의 신변을 염려하여 처음부터 끝까지 순사보 한 명을 붙여 주었다”라고 한다. 방언 조사 등의 목적으로 이런 곳을 찾는 사람은 없었으며 “조사에 있어 의심을 받기도 하지만 한 편으로는 기뻐하며 반겨 주는 사람도 있었다. 경관을 대동하고 여유롭게 말을 탄 채 대정(大靜)의 마을에 도착했을 때 마을 입구에 보통학교의 전직 원과 학생들이 도열하여 나를 맞이해 주어서 그만 식은땀이 흐르고 민망하기 짝이 없었던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sup>32)</sup> 조선총독부 학무국 사람으로부터의 부탁이라면 이러한 “환영”을 하지 않는 편이 더 이상할 것이다. “경관을 대동하고 여유롭게 말을 탄 채”면서 “민망하다”고 말하는 것은 자신의 위치에 대한 자각이 너무 없었던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 4) 방언구획론

일본에서는 1927년에 도조 미사오(東條操, 1884~1966)가 방언 구획론을 서적의 형태로 정리했다(『国語の方言区画』, 育英書院). 이미 1921년부터 방언 구획론을 전개한 도조였지만 각지 방언의 데이터는 도조가 모은 것이 아니다. 이것은 1902년에 설치된 국어조사위원회가 일본 전국의 교육회나 사범학교 등지에서 양케이트 형식으로 모은 데이터를 이용한 것이었다.<sup>33)</sup>

32) 小倉進平, 『方言採集追憶漫談』, 『方言』 5卷 10号, 1935年 10月, 25~26쪽.

33) 국어조사위원회에 의한 질문 형식의 제1차 조사는 1903년에 행해졌으며 그 결과는 『音韻調査報告書』(1905年), 『口語法調査報告書』(1906年)에 정리되어 각각 『音韻分布図』(29장), 『口語法分布図』(37장)가 붙여졌다. 그리고 이 조사의 미비를 보완하기 위해 제2차 조사가 1908년에 행해졌다. 이

여기서 문제로 다루고자 하는 것은 “방언 구획”의 구체적인 구분이 아니라 “구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 자체에 대한 것이다.

예를 들어 도조는 1942년 10월 집필한 글에서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한 시대의 각 지역 방언의 기술적 연구를 방언학의 제1단계 공정으로 본다면, 제2단계는 방언구획론의 연구가 행해지는 순서라 할 수 있다. 방언 구획 연구는 전국 각 방언의 기록을 기초로 하여 그 공통점과 차이점을 면밀히 비교하고 이를 계통화하는 데 있다. 한 나라의 국어가 나누어져 약간의 대방언이 되고, 그 대방언이 각각 또 약간의 소방언이 되고, 점차 하위의 소방언으로 나누어져 町과 村의 방언이 되기까지 계통표를 작성하는 것이 구획론의 임무로서, 한 시대의 국어 방언 계통은 여기에서 최초로 밝혀진다.<sup>34)</sup>

“각 지역 방언의 기술적 연구”를 실시한 국어조사위원회의 조사의 다음 단계를 밟은 것이 “방언구획론”이라고 평가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도조는 “방언의 총합이 즉 국어이다(표준어를 가리켜 국어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국어는 그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라고<sup>35)</sup> 말하고 있으므로 방언구획이란 “국어”(일본어)를 분절화한 것과 다름없다. 도조는 어느 시대의 방언을 기록하고 그것을 계통화하는 것이 방언구획론이라고 하고 있었지만 애초에 그 데이터는 국어조사위원회의 힘으로 모은 것이다. 국어조사위원회는 조사 방침의 하나로 방언을 조사하여 표준어를 선정하는 것을 내걸고 있었다. 이러한 점에서 단순히 방언을 계통화하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는 목적이 방언 조사에 있었다.<sup>36)</sup>

표준어 선정을 위한 방언조사라는 시선은 일단 오구라의 한국어 방언 연구의 목적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많은 지점에서 효율적으로 방언을 조사

---

조사 결과를 분석한 것이 도조 미사오였다. 다만 2차 조사 결과는 관동 대지진으로 소실돼 전모는 알 수 없다.

34) 東条操, 『方言学私見』, 『橋本博士還曆記念国語学論集』, 岩波書店, 1944年, 31쪽.

35) 東条操, 『方言の本質』, 『国語と国文学』 36号, 1927年 4月, 46쪽.

36) 자세한 것은 安田敏朗, 『〈国語〉と〈方言〉のあいだー言語構築の政治学』, 人文書院, 1999年 참조.

한 오구라는 도조의 방언구획론을 의식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1930년대 말에 조선어의 방언 구획을 발표한다.

조선의 방언은 오늘날 장소에 따라 현격한 차이가 있으며 지방에 따라서는 표준어인 경성어조차 통하지 않는 곳이 있다. 나는 일찍부터 조선어 방언 연구의 필요성을 느껴 과거 20년 동안 그 조사에 미력을 다하고 있는데, 내가 볼 때는 방언 분포의 구획을 대체로 (1) 경기·충청남북·강원·황해 등 여러 도를 포괄하는 중부방언, (2) 전라남북도 방언, (3) 경상남북도 방언, (4) 평안남북도 방언, (5) 함경남북도 방언의 5종으로 크게 나누는 것이 편리하다고 생각되며, 제주도 방언은 전라남북도 방언과 가장 가까운 관계를 갖는다고 생각되지만 여러 가지 점에서 볼 때 앞에서 서술한 5대 방언에서 독립시키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sup>37)</sup>

단, 구획을 나타내고 있지만 각 구획의 상호 관계를 명시하고 있지는 않다. 그리고 또 도조 미사오처럼 방언의 총합으로서의 조선어라는 견해도 명시하지 않았다. 물론, 그것은 일부러 언급할 필요도 없는 일이었지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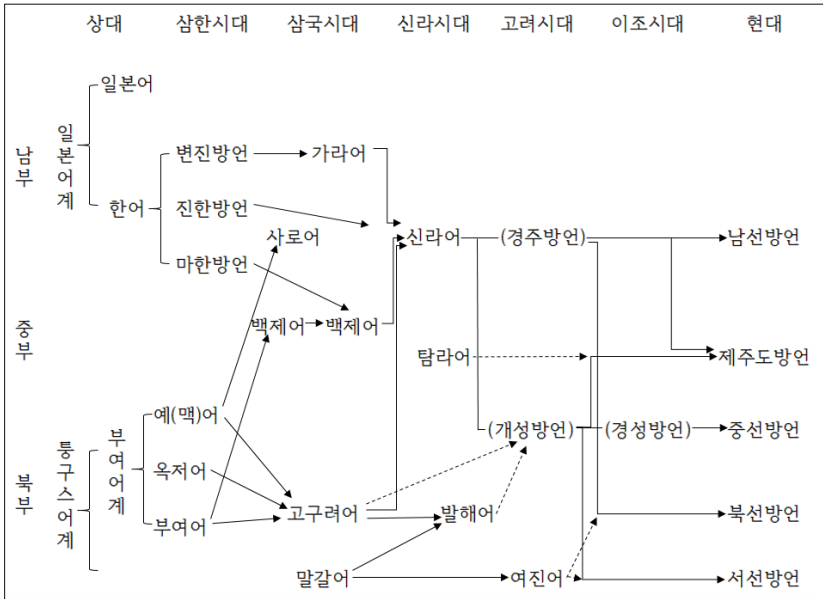
또 이와 더불어 방언 구획에 시간을 고려하여 논의를 진행한 것이 오구라가 동경제국대학 교수 시절에 가르쳤던 고노 로쿠로(河野六郎, 1912~1998)였다. 고노는 1937년 동경제국대학 언어학과를 졸업한 후 1940년까지 일본 학술진흥회로부터 연구 지원을 받아 『조선어 방언의 채집 및 정리』(대표: 오구라 신페이)를 진행, 1940년 경성제국대학 법문학부 조수, 1941년 강사(조선어학 담당), 1942년 조교수가 된다.

1942년 7월의 서문이 있는 고노 로쿠로 『朝鮮方言學試攷 - 「缺(はさみ)」, 『語考』(1945년 4월)는 부제 그대로 조선어의 “가위(缺)”의 방언 분포를 논한 것으로, 거기에서 고노는 방언 구획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는데, 오구라의 6구획을 5구획으로 하여 “경기도 방언”을 상당히 넓게 다루고 있다.

37) 小倉進平, 『朝鮮語概観』, 『国文学 解釈と鑑賞』 4卷7号, 1939年 7月, 137쪽. 1940년 동양문고에서 출판된 THE OUTLINE OF THE KOREAN DIALECTS의 Section 13 Demarcation of the Korean Dialects에 이 여섯 가지 구획에 대한 설명이 있으며 『朝鮮語方言の研究 下巻』(岩波書店, 1944年)의 「第三章 朝鮮語方言の区画」에 일본어로 번역되었다.

- 1. 중부 조선 방언      오구라 선생님의 경기도 방언에 대체로 상응한다.
- 2. 서부 조선 방언      오구라 선생님의 평안도 방언에 상당한다.
- 3. 북부 조선 방언      오구라 선생님의 함경도 방언과 대체로 일치한다.
- 4. 남부 조선 방언      오구라 선생님의 경상도 방언과 전라도 방언을 합친다.
- 5. 제주도 방언          오구라 선생님과 같다.<sup>38)</sup>

고노는 이 구획의 역사를 다음과 같이 이해한다.



방언의 총화가 조선어라고 하는 견해보다는 그 복잡한 기원을 각각의 방언이 내포하고 있다는 견해일 것이다. 오구라가 고노의 이런 견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는 알려져 있지 않다.

38) 河野六郎, 『朝鮮方言學試攷 -- 『鈇』語考』, 京城帝國大學文學會論叢第11輯, 東都書籍株式會社京城支店刊, 1945年 4月, 152쪽.

## 6. 결론

지금까지 간단하게나마 오구라 신페이의 조선어 연구의 의미를 살펴보고 왔다.

오구라에게 있어 조선어 연구란 보다 오래된 형태를 재구하기 위한 것으로 문헌 연구는 물론 방언 연구의 목적도 여기에 있었다고 해도 무방하다. 그것은 거슬러 올라가면 “일본어의 위치를 정한다”라는 “제국대학 언어학”에 매여 있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매이다”라고 하면 어찌가 있을지도 모른다. 그 당시의 유행이었던 비교 언어학에 준거했을 뿐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고행을 찾아간다는 이러한 자세는 언어학과에서 오구라의 1학년 아래에 있었던 긴다이치 교스케가 현재 사용되고 있는 아이누어에는 흥미를 보이지 않고 ‘유카라’라는 구전 서사시를 기록하는 데 전력을 기울였던 것과 유사하다. 즉 긴다이치는 구전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아이누어의 옛 형태가 남아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sup>39)</sup>

언어 연구와 언어 운동은 완전히 겹치는 것은 아니다. 시대나 사람, 목적 등에 따라 그 겹치는 양상이 달라진다. 언어 운동은 언어 정책과도 연결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그렇게 되면 근대 일본에서 일본인이 방언 연구를 할 경우 표준어를 만든다는 목적이 따라다니게 된다. 반면 외국인이 일본어 방언 연구를 한다면, 단순한 취미일 뿐이라고 생각되기도 한다.

조선어학회가 1930년대에 적극적으로 언어 운동을 전개하였는데 이 경우 방언 연구는 표준어를 정하기 위한 기초 작업으로, 정서법의 이상적인 방향에 대해서도 교육 효과를 노린다는 등의 측면이 생기게 된다.

오구라는 조선인이 아니기 때문에 조선어의 표준어 제정에는 흥미를 보이지 않고 옛 조선어의 재구에 열정을 쏟았다는 해석도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언어와 민족을 너무 안이하게 결합시키는 듯하기도 하다.

한 가지 말할 수 있는 것은 서두에 소개한 하기와라 히코조가 말하는 것처럼

39) 安田敏朗, 『金田一京助と日本語の近代』, 平凡社新書, 2008年.

럼 “현대의 조선어를 만들었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오구라가 대학에서 접한 “제국대학 언어학”에 규정되어 있었기 때문이라고 본다.

## ■ 참고문헌

- 『京城帝大方言會』, 『靑丘學叢』 6号, 1931年 11月.
- 『朝鮮語に於ける謙讓法・尊敬法の助動詞』, {東洋文庫論叢} 26, 1938年.
- 江上波夫編, 『東洋学の系譜』第2集, 大修館書店, 1994年.
- 京都大学文学部国語学国文学研究室編, 『小倉進平博士著作集』, 全4巻, 京都大学国文学会, 1975年.
- 東条操, 『方言の本質』, 『国語と国文学』 36号, 1927年 4月.
- \_\_\_\_\_, 『方言学私見』, 『橋本博士還曆記念国語学論集』, 岩波書店, 1944年.
- 上田万年演説, 『日本語学の本源(一八九五年六月一五日)』(安田敏郎翻刻・校注), 『言語社会』 10巻, 2016年 3月.
- 小倉進平, 『濟州島方言(一)』, 『朝鮮及滿洲』 68号, 1913年 3月.
- \_\_\_\_\_, 『濟州島方言(二)』, 『朝鮮及滿洲』 69号, 1913年 4月.
- \_\_\_\_\_, 『濟州島方言(三)』, 『朝鮮及滿洲』 70号, 1913年 5月.
- \_\_\_\_\_, 『対馬方言(上)』, 『国学院雑誌』 20巻 11号, 1914年 11月.
- \_\_\_\_\_, 『南部朝鮮の方言』, 朝鮮史学会, 1924年.
- \_\_\_\_\_, 『郷歌及史読の研究』, 京城帝国大学法文学部紀要第一, 1929年.
- \_\_\_\_\_, 『金沢博士著『日鮮同祖論』』, 『京城日報』, 1929年 5月 19日.
- \_\_\_\_\_, 『濟州島方言』, 『靑丘學叢』 5号, 1931年 8月.
- \_\_\_\_\_, 『朝鮮語と日本語』(国語文化講座24), 明治書院, 1934年.
- \_\_\_\_\_, 『朝鮮語の系統』, 岩波講座東洋思潮, 1935年.
- \_\_\_\_\_, 『方言分布上の断層』, 『ドルメン』 4巻 1号, 1935年 1月.
- \_\_\_\_\_, 『方言採集追憶漫談』, 『方言』 5巻10号, 1935年 10月.
- \_\_\_\_\_, 『郷歌・史読の問題を繞りて』, 『史学雑誌』 47巻 5号, 1936年 5月.
- \_\_\_\_\_, 『日本言語学会の創立』, 『帝国大学新聞』 1938年 6月 6日付.
- \_\_\_\_\_, 『朝鮮語概観』, 『国文学 解釈と鑑賞』 4巻 7号, 1939年 7月.
- \_\_\_\_\_, 『朝鮮語方言の研究 下巻』, 岩波書店, 1944年.
- 新村出筆録・柴田武校訂, 『上田万年 言語学』, 教育出版, 1975年.
- 安田敏郎, 『「帝国大学言語学」の射程 - 上田万年から金田一京助へ』, 『立命館言語文化研究』 16巻3号, 2005年2月.
- 安田敏郎, 『「言語」の構築 - 小倉進平と植民地朝鮮をめぐって』, 三元社, 1999年.
- \_\_\_\_\_, 『<国語>と<方言>のあいだ - 言語構築の政治学』, 人文書院, 1999年.
- \_\_\_\_\_, 『金田一京助と日本語の近代』, 平凡社新書, 2008年.
- 야스다 도시아키, 『근대 이행기의 일본어학 성립』,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역음, 『근대이행기 동아시아의 자국어인식과 자국어학의 성립』, 소명출판, 2015.
- 萩原彦三, 『日本統治下の朝鮮における朝鮮語教育』, 友邦シリーズ 第3号, 財団法人友邦協会, 1966年.
- 河野六郎, 『朝鮮方言学試攷 - 「缺」語考』, 京城帝国大学文学会論叢第11輯, 東都書籍株式会社京城支店刊, 1945年4月.
- \_\_\_\_\_, 『故小倉進平博士』, 『言語研究』 16号, 1950年 8月.
- \_\_\_\_\_, 『故小倉進平博士著作目録』, 『言語研究』 16号, 1950年 8月.

学習院大学東洋文化研究所, 『小倉進平関係文書目録－学習院大学東洋文化研究所蔵(調査研究報告 no. 60)』, 2016年.

丸山隆司, 『<アイヌ>学の誕生－金田一と知里と』, 彩流社, 2002年.



## 小倉進平の朝鮮語研究はどのような意味をもつのか

Yasuda Toshiaki\*

小倉進平は近代的な朝鮮語研究に本格的にとりくんだ人物のひとりとされている。本稿では、小倉の研究の根底にある志向をとりだすことにした。それは、小倉を東京帝国大学で指導した上田万年の構想した「帝国大学言語学」の志向と一致するものであった。つまり、日本語とその周辺諸言語との関連を比較言語学的に考察するための材料を探すための研究であった。したがって、朝鮮語のより古い形を求めて小倉は、文献資料や方言調査を精力的におこなっていった。その結果として、日本語と朝鮮語の同系論に対する慎重な立場を得ることになり、また方言調査によって総合的な方言区画論を構築することができた。しかし、そうした姿勢は、植民地支配下における朝鮮語の現実を直視するものではなかった点を忘れてはならないだろう。

**キーワード** : 小倉進平, 帝国大学言語学, 比較言語学, 同系論, 方言調査

논문투고일: 2020년 10월 15일 || 심사완료일: 2020년 11월 24일 || 게재확정일: 2020년 11월 26일

---

\* Professor, Hitotsubashi University Graduate School for Language and Society